Vol. 7 | 2019 AUTUMN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학교에 자치의 숨결을 불어넣다

Class Know-How
We are Supersafe Hero!

Interview & People
도스토옙스키의 발자취를 더듬다

Teacher Life
교육 마술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
굳이, 선생님께 배울 Rap

일러스트 김화인 선생님

COVER STORY

나뭇잎이 색을 바꾸는 만큼
나의 꿈도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늘이 깊어지는 만큼
나의 꿈도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표지 일러스트 **김 화 인**

- 청주 원봉초등학교 교사
- 참쌤스쿨 2기
- 국정교과서 『안전한 생활』, EBS 『방학 생활』, 네이버 지식백과 『중학수학 비주얼 개념사전』 등의 삽화 제작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선생님들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수록하고 있는 테크빌교육의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18년 3월 창간 이후 선생님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선생님들을 만나뵙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18년_vol.1 창간호

2018년_vol.2 여름호

2018년_vol.3 가을호

2018년_vol.4 겨울호

2019년_vol.5 봄호

2019년_vol.6 여름호

숲길 지나 가을

임승천

숲길은 언제나 말이 없다.

눈길 하나 줄 수 없는 길
늘 불어오는 바람
꽃잎은 하나 둘 떨어지고

한 굽이 또 한 굽이
소리 내지 않고 흐르는
내 마음속 강물

더위는 산을 돌아
계절을 되감고
마음둘레 가득 지날 때

숲은 숲으로 남아
숲속 조용히 걷고 싶은 날

푸른 삶의 길을 지나
다시 다가오는 가을

사진 **백두산 소천지**

윤여옥 42.5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현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photoyyo.com

시 **숲길 지나 가을**

임승천 1985년 월간 《심상》으로 등단하였고, 2009년
기독교문학상과 2014년 월간문학상을 수상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CONTENTS

Vol.7 | 2019 AUTUMN

Zoom in Focus

06 학교에 자치의 숨결을 불어넣다 • 김요섭

10 행복교육이 시작되는 대전자유학기제 • 조진형

Class Know-How

14 미래의 초등 수학 교육 • 이영배

16 We are Supersafe Hero! • 지소영

18 우리는 필요한 그림 직접 그려 활용해요 • 정원상

22 맛있는 영어 그림책! • 이은주

Hot EduTech

26 AI와 교사의 콜라보, 미래 인재 길러내는 코칭스태프 • 윤석진

28 학생 삶의 문제를 역량 중심의 소프트웨어, 로봇 수업에 적용해보자 • 최종원

30 SW교육 선도학교 'SW Day' 캠프 운영 성공기 • 양윤경

발행처 테크빌교육㈜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19년 9월 16일 통권 제7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lshpr@tekville.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 People

34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발자취를 더듬다 • 김현정

38 책과 글이 피어나는 교실을 꿈꾸며 • 양효준

40 대입 논술의 첫 단계,
논제 분석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 강태호

Teacherville News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48 2019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50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Teacher Life

52 교육 마술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 • 조상희

56 굳이, 선생님께 배울 Rap • 서진혁

Book

60 수업이 즐거운 손그림 그리기 / 감정조절카드

Cartoon

62 교사 일상 웹툰 – 권선생 단상툰 • 최성권

학교에 자치의 숨결을 불어넣다

글. 김요섭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사

혁신학교·학생회·학부모회·마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합심하여 학교의 비전을 세우고,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한 것은 내 교직생활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이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경험한 설렘과 기쁨을 과연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당한 자율권과 책임감이 주어졌지만 관행과 규제로부터는 자유로웠던 학교생활은 즐거움과 보람을 선물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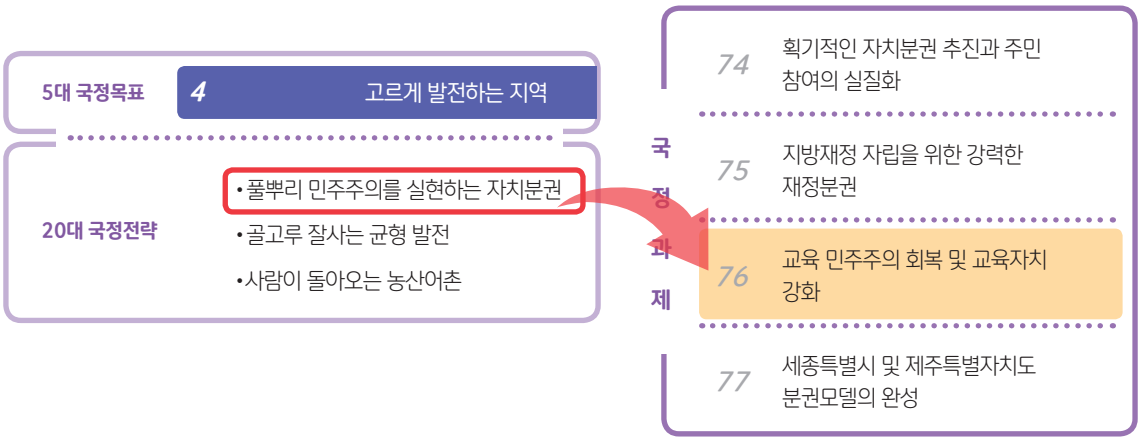
학교자치, 핵심적인 교육 담론으로 등장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실현케 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웠는데, 그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단위학교의 자치 강화'이다.

약력 김요섭

- 現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사
- 인천부개초등학교 교사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저서 『학교자치』(공저), 『교육정책 스포트라이트』(공저)
- 혁신학교·학생회·학부모회·마을학교 운영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강화 국정과제 체계도]



>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자치의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 분권과 교육자치의 활성화, 학교 혁신 운동의 확대, 미래교육 체제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요구, 초·중등 교육의 지방이양 등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자치가 핵심적인 교육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자치란?

최근 교육계에서 '학교자치'는 뜨거운 감자다. 시·도교육청의 기본계획과 부서 조직은 물론,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에서 학교자치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시도의 학교자치조례 등 시·도별로 조례에 대한 준비와 실행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학교자치란 무엇인가?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는 줄이고, 학교 구성원의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초·중등 243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김혁동 외)에 따르면,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자치 인식 실태는 학교조직운영(학교 비전 설정과 공유, 학사일정 편성, 학칙 제·개정), 교원인사(교장공모,

교사초빙), 교육과정(교육과정 재구성, 창체 편성, 학생자치 활동), 재정(학교예산 결산, 자치회 예산, 교복 체육복 선정) 등 4개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이라는 권한이 상당히 많이 보장되며, 학교별·교사별 교육과정 운영 또한 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학교자치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낯설지만, 교육 개혁과 혁신의 동력으로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학교자치 관련해 함께 생각해볼 여러 문제들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학교로 어떻게 권한을 이양할 것인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학교는 어떻게 자치역량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자치의 관점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한 학교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을까? 교사의 국가직·지방직에 대한 오해나 쟁점은 무엇인가? 교과목을 교사나 학생이 만들 수는 없을까? 학생의 의견은 어디까지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만

1. 지난 7월 13일에 열린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사전포럼'에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2. 교육부·국가교육회의·경기도의회·용인교육시민포럼·교육디자인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3.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학교자치의 개념과 쟁점,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 학교자치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들어가는 학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과연 학교자치는 무엇을 갈망하는 외침인가? 등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다.

학교자치의 구체적 전략 담긴 책 준비

지난해 『학교자치』 책에 이어 올해 가을 후속 도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전작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자치에 대한 시선(내부의 시선, 바람의 시선, 제도의 시선)을 다루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교육자치와 혁신을 넘어 학교자치로 나아가는 흐름과 배경, 학교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운영·교원인사·교육과정·교육재정 등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행복교육이 시작되는 대전자유학기제

글. 조진형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장학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의 기회를 제공,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설계한다.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자유학년제로 개편되고 있다. 2020년도에 전국의 중학교 중 93%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시점에 특색 있게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자유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행복한 '대전자유학기제'의 가치와 영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대전자유가치로 '선택과 확산'(교육과정 영역), '사고와 질문'(교실수업 영역), '탐구와 체험'(체험활동 영역), '꿈 지원'(진로선택 영역), '행복수업공동체'(공동체 영역)를 설정하고, 행복한 대전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자유학기 가치와 영역]

선택과 확산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학교별 특색있는 자유학기(년)제 운영모형 적용
사고와 질문 (교실수업 영역)	•발산적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방법 다양화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 확대 •과정 및 학생 중심평가 등 평가 및 기록방법 개선
탐구와 체험 (체험활동 영역)	•교과 내·외 좋은 학습 경험 기회 확대 •꿈·끼 연계 동아리·예술체육 활동 •체험 기회 질제고를 위한 사회적 자원 활용
꿈 지원 (진로선택 영역)	•진로 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 •상상력과 창의력 계발 지원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행복수업공동체 (공동체 영역)	•자유학기(년)제 업무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수업공동체 중심 교사 전문성 신장 •교육공동체 협력적·긍정적 공감대 형성

'선택과 확산'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등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린 교육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의 균형 있는 편성·운영과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교과협의회, 또는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차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을 연계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STEP 컨설팅(계획-실행-성과분석)을 투입했다. 교육과정 편성 및 나이스 업무와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인터넷으로 보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 대상도 확대해가고 있다.

창의적 '사고와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개선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학습, 융합수업 등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의 자유학기 교과수업을 지원하고, 과정중심평가 확대를 위한 평가전문가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창의적인 주제선택 활동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대상 주제선택활동 콘테스트를 개최해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교사 연구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활동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약력 조진형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사회분과위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위원
- 『교직실무(교직의 이해와 혁신)』 저자

을 통해 자유학기활동이 생생하게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TF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탐구와 체험'을 통한 체험활동 내실화

학교 여건에 맞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우수 자원 확보와 질관리를 통해 내실 있게 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현장 체험 지원을 위한 '대전자유학기제 행복체험버스'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집중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관리주간으로 설정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로체험기관 체험활동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자유학기학부모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맘(MOM)이 먼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부모의 호응도 높다.

'꿈 지원'을 통한 진로선택 지원

단위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유학기에 활용 가능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검사체계 구축하고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진로코치 등이 연계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초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수업공동체'를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 문화 확산

자유학기제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네트워크,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다. 수업탐구공동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학교를 통해 대전 자유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학기 및 연계학년의 교육

과정, 교과,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365ONE-STOP 자유학기지원단도 운영 중이다.

'자유학기 성장지원 프로젝트' 통합 공모 사업 운영

대전자유학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유학기에서의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프로젝트 기반 수업,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학교는 희망 영역에 공모를 통해 참여하고, 학교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 성장지원 프로젝트 통합 공모 내용]

영역	주요 프로그램	선정학교수	지원금
기초학력보장 ESSP*프로그램 운영	• 학습부진학생 치료 및 상담 • 뇌 기반 학습전략, 자기조절 학습전략, 학습동기 이해 • ADHD 아동의 이해와 지도방법 • 효과적인 기억 전략, 또래 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지도 등	총 6교	교당 400만 원
사제동행 두드림(Do-Dream) 캠프	• 캠프에 자유학기활동 관련 활동, 교사-학생 간 소통 프로그램, 교사-학생 힐링 프로그램을 포함 • 가급적 1박2일 캠프로 운영하되, 학교실정 및 참가학생 수에 따라 1일 캠프도 가능 • 학급단위 캠프 또는 동아리 단위 캠프 운영 지원도 가능	총 10교	교당 400만 원
프로젝트수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내 수업탐구공동체 중심 프로젝트 기반 수업 운영 지원 •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수행 역량 강화 • 교사들의 프로젝트 수업 설계 및 운영 지원	총 3교	교당 400만 원
다면평가도구 선별검사 운영	• BGT, 로샤, TAT SCT, HTP, MMPI, 한국웩슬러지능검사(K-WISC Ⅲ, WAIS) 등 평가도구 적용 • 분노 및 충동조절,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훈련 • 언어검사, 사회성숙도검사, 학습능력 검사, 진로탐색검사 지원	총 6교	교당 400만 원
예술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운영	• 인성 및 심미적 감각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음악교육, 글쓰기, 뮤지컬 및 연극 무대 경험, 뮤지컬 결과발표회 등	총 5교	교당 400만 원

*ESSP 프로그램: 자유학기 모든 학생의 성공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Every Student Success Program)으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을 지원.

자유학기제 경험이 '공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자유학기제는 크게 '교수·학습의 혁신'과 '평가 개선'의 두 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핵심역량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도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육과정 속에서 자유학기제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배움을 통한 중학교 자유학년·자유학기의 경험이 공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래의 초등 수학 교육

실생활 수학 수업과 점프과제 수업 이뤄져야

글. 이영배 광주 어등초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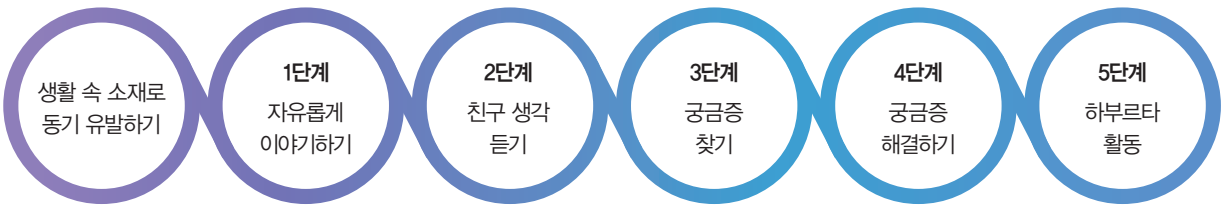
수학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래 수학 교육의 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대학입시교육을 위한 수단의 수학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창조물을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수학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까? 수학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래의 초등 수학 교육은 재미없고 따분한 문제 풀이 위주의 수학이 아닌 즐겁게 표현하고, 신나게 즐기는 수학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놀이 수학, 게임 수학을 넘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학 시간, 이에 적합한 수학 수업이 실생활 수학 수업과 점프과제 수업이다.

실생활 수학 수업

실생활 수학 수업은 생활 속에서 수학이 사용되는 경우를 관찰하고, 수학의 편리함을 통해 수학 수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의 규칙을 찾아내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신호등의 발견이 대표적이다. 실생활 수학 수업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생활 수학 수업 전개 과정]



실생활 수학 수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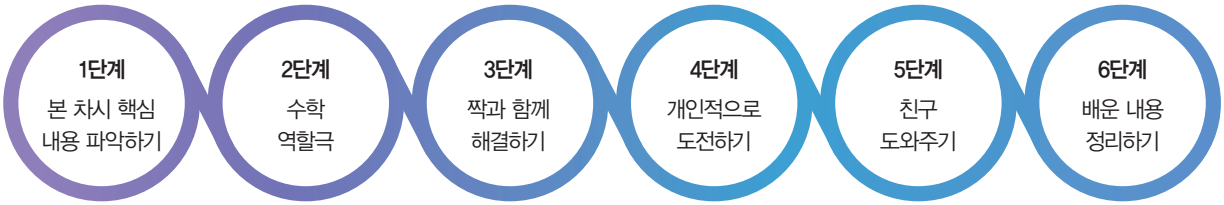
실생활 수학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수학 시간을 기다리고, 수학 수업을 즐거워한다. 무엇보다 재미없고 어려워서 싫다는 수학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진다. 더불어 수학 역할극을 진행하면 오감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

로써 친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점프과제 수학 수업

점프과제 수학 수업은 학생들이 참여해 배움으로써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스로 또는 짝과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찾아낸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수학 실력(핵심역량)이 향상된다. 점프과제 수학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점프과제 수학 수업 전개 과정]



점프과제 수학 수업의 효과

점프과제 수학 수업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과 친구들 간의 관계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 점프과제의 매력에 빠진 학생들은 오늘 점프과제를 하는지, 오늘 점프과제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많아진다. 또한 점프과제에 도전해 성공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고,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자존감과 자긍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점프과제의 미묘한 매력에 퐁당 빠져 '수찾자'(수학을 찾자) 학생들이 많아진다.

[2학점] 똘배쌤의 실生활 수학

미래 최고의 수학 교실

수학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평생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활 속 관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가짐과 자부심 그리고 개개인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가일수록 수학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 풀이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전자계산기, 콴다(문제해결 검색 프로그램), AI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감성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교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수학 교실에서는 언제나 정해진 상황에서 이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생산자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약력 이영배

- 現 광주 어등초등학교 교사
- EBS2 최고의 수학 교실 프로그램 출연
- 저서 「평범한 아이의 질문으로 배우는 대한민국 아빠표 수학」 외 다수 출간
- 청주교육대학교 교사 창의적 수업 대회 전국 최우수상 수상

We are Supersafe Hero!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살아남기—학교 안전동아리

글. 지소영 신제주초등학교 선생님

학교폭력 추방 슬로건을 내건 팔찌를 만들어 다짐하고 있다.

얼마 전, 영화 〈EXIT〉를 봤다.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생명을 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은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기보다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 주인공처럼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우리가 함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 학교 안전동아리의 운영 목적이다.

안전동아리,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및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부 안전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동아리인 만큼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월 1회 진행했다.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의 '선생님도 이젠 최고의 안전교육 전문가' 60시간 교육 이수와 출석고사로 (사)어린이안전학교의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 안전한 생활 교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통한 피라미드 토론 실습, 신호등 약속 만들기, 안전체험관에서의 CPR 실습, 지하철 화재 대피, 승강기 안전, JEJU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과 K-Safety EXPO 참관을 통한 각종 안전 전문가 교사 연수 및 체험활동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 생활이 되었어요

놀이 및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 자료의 수집과 개발, 수업 공개 및 공유, 피드백(https://www.facebook.com/soyloveinjeju)이 이루어졌다.

공포의 야외 활동은 싫어요

- [2안01-09]공중위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시기별 식중독 예방 요령과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알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포스터 그리기

약력 지소영

- 現 신제주초등학교 교사
- 現 교육부 안전교육 중앙컨설팅단 컨설턴트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표창
- 교육부 안전동아리 운영 대표
- 제주新보 제주안전문화대상(학교 안전 부문) 수상
- 한국교총 전국현장교육 연구대회 입상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우수사례 수상
- 교육부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운영 대표

생활용품과 간단한 체험활동으로도 안전 수업이 훨씬 쉬워진다.

자연재난,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어요

- [2안04-03]지진·황사·미세먼지 등의 위험성을 알고 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을 적용한다.
- 황사와 미세먼지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알림판 만들기

알고 타면 안전해요

- [2안02-06]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버스·택시·지하철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고 나만의 안전버스카드 만들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요

- [2안03-04]학교폭력의 유형을 알고 대처한다.
-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법을 익혀 실천하기

안전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요

재난안전동화 하브루타, 119신고 연습, 대피 실습, OX퀴즈 맞추기 등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화재발생 장소별 대응법과 화재예방요령을 스스로 찾아 공유하며 안전은 생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지진 안전 주간'에는 지진의 의미를 시작으로 지진 대피 원리와 장소별·단계별 대피 요령을 알아보고 30초 버티기 게임이나 순발력 뽕망치 게임으로 지진에 대한 간접 체험과 머리 보호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실제 훈련을 통해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은 각각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경로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의 훈련과 실제 대피 훈련을 병행하고,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소방시설의 위치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식의 대피보다 스스로 비상유도등을 따라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어느 건물이든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고의 미래는 안전입니다

〈EXIT〉 영화 초반 주인공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배운 것이 고작 산을 타는 것이냐는 무시를 당하지만, 죽음의 연기로 가득 찬 건물을 오가며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함께 외쳤던 구조 신호, 쓰레기봉투로 만든 방호복, 어둠 속 점자블록 등 바로 그 쓸데없이 배운 경험과 스킬이 위태로운 순간에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재난 속에 살고 있다. 응급의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 안전동아리를 통해 안전을 연구하고 안전을 실천하며 안전을 미래의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수업이 즐거운 손그림 그리기

우리는 필요한 그림 직접 그려 활용해요

글. 정원상 경남 함양 금반초등학교 선생님

예전엔 텍스트 중심의 소통이 일반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이미지와 영상을 통한 소통이 활발한 시대다. 인기 있는 SNS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보더라도 이미지는 소통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볍게 주고받는 채팅에서 이모티콘은 텍스트보다 더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복잡한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인포그래픽도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미지는 일상생활에 깊게 들어와 우리의 의사소통에 긴밀한 역할을 하는데 학교에서의 이미지 활용은 어떨까?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는 있지만 각 학급 교사나 학생들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딱 맞는 자료를 찾기 또한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찾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저작권이 중요시되는 요즘 이미지를 함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직접 필요한 이미지를 창작해 활용하면 어떨까?

약력 정원상

- 現 경남 함양 금반초등학교 교사
- 참쌤스쿨 1기
- 국정교과서 '안전한 생활', ebs 방학생활 삽화
- 이미지중심 교육 콘텐츠 창작 연구회 '글쩍글쩍' 회장
- [득템마켓] 블로그 운영
- 저서 『수업이 즐거운 손그림 그리기』

학교 수업의 이미지 창작 활동은 미적 형태보다 소통이 중요

수업에 그림을 그려 활용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림 그리기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미술에 소질 있는 아이의 그림과 비교해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고, 본인들이 그린 그림을 내보이기 싫어한다. 이에 교사

4~6학년 나무 그림 작품, 기본 도형을 이용해 그린 그림은 실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가 그림지도를 해보려고 해도 교사 또한 자신이 없다.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을 느끼는 이미지 창작은 교실에서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교실 속 이미지 창작은 미적 형태보다는 소통을 중요시하며 미술시간의 이미지 창작과는 차이를 둔다. 때문에 이미지 창작에 대한 시간, 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이미지 창작법을 익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그릴 수 있는 기본 도형을 활용한 이미지 창작법을 학생들과 함께 익히고 활용하면 좋다.

누구나 쉽게 그리는 손그림! 도형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대상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점·선·면, 즉 도형이다. 동그라미라는 도형에 점 3개만 찍어도 우리는 이것을 사람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상징적인 특징으로 그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리지 않아도 간단히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도형 그림은 이처럼 대상을 간단한 도형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첫 번째 사실적인 나무 표현을 조금 단순화하면 두 번째 그림처럼 되고 나무라는 대상의 상징 요소만 뽑아 도형과 선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세 번째 그림처럼 된다. 도형 그림은 표현이 간단해서 그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고 빨리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 요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 교육적이고도 효과적인

> 교실 속 이미지 창작은 미적 형태보다는 소통을 중요시하며 미술시간의 이미지 창작과는 차이를 둔다.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다보면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도형 그림은 형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능력과는 별개로 사물의 상징적인 특징을 파악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재미있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연습해 깔끔한 형태의 도형 그림 창작

도형 그림을 활용하면 여섯 살 아이나 성인도 모두 같은 형태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다 같은 형태의 도형 그림이더라도 이미지를 통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이미지의 형태를 깔끔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다. 쉬운 그림이라고 빨리 대충 그리다보면 불완전한 형태로 인해 이미지를 읽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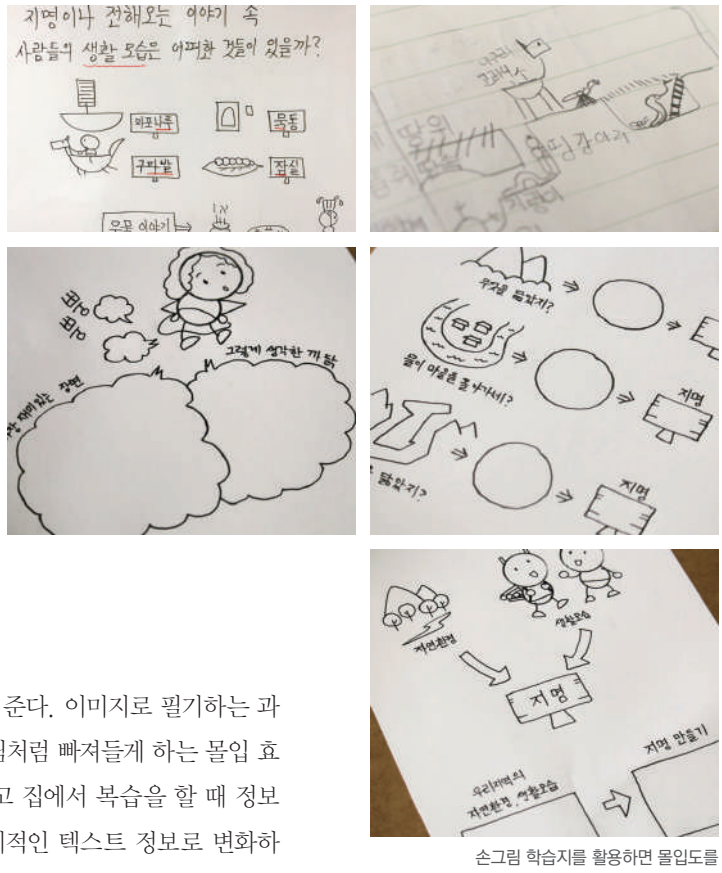
형태를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 그리기의 기초인 선긋기 연습을 꾸준히 연습시켜야 한다. 선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하고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섯 살 아이의 선과 성인의 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같은 성인이라도 대충 빨리 그린 선과 천천히 형태를 생각하며 그은 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년의 소근육 발달 수준에 맞게 지도하며 꾸준한 그리기 연습으로 근육을 발달시킨다면 선이 점차 단단해지고 깔끔해져 누구든 이미지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실에서의 손그림 이미지 활용

교실 속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더 생동감 있게 소통할 수 있고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다. 몇 가지 예시로든 사례를 보고 학급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

1) 이미지 중심 칠판 판서 및 노트 필기

학습할 내용을 이미지로 함축해 칠판에 그리고, 이를 아이들이 노트에



손그림 학습지를 활용하면 몰입도를 높이고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필기하면 몰입도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미지로 필기하는 과정은 하나의 판 위에서 변화하는 모래 그림처럼 빠져들게 하는 몰입 효과가 있고, 학생들은 필기한 이미지를 보고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정보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보며 구체적인 텍스트 정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2) 즉석 손그림 학습지 제작

수업 준비를 하다보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고, 학급 상황에 맞게 편집하고 인쇄하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중심 학습지를 제작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텍스트와 글쓰기 칸이 있는 학습지만 만들려고 한다. 이때 A4용지에 손그림으로 그린 이미지 중심 학습지를 만들어보도록 하자. 단순 글쓰기 학습지부터 빈칸 채우기, 퍼즐, 정보 구조화 학습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교실에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도 많다. 어렵고 복잡한 그림 그리기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손그림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더욱 재미있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

맛있는 영어 그림책!

원서 그림책을 정규 수업 속으로

글. 이은주 서울선사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아이들이 평소에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표현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접할 경험도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재료가 바로 '원서 그림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 창의적으로 사용된 영어 표현 사례들을 보여주기에 좋은 원서 그림책을 정규 수업시간에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 학습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담감 제로 - 맛있는 영어 그림책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라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원서 그림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글자를 처음 가르칠 때 손가락에 꿀을

찍어 글자를 쓰게 하고는 꿀을 빨아 먹도록 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영어 그림책은 맛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하자. 원서 그림책이 긍정적이고 강렬한 느낌으로 남게 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감각적인 활동과 함께 '원서 그림책'을 접하도록 했다.

서수 익히기 단원을 배운 뒤 활용 - 『Five little men』

그림책 『Five little men』은 6학년 교과서 중 서수 익히기 단원을 배운 뒤 활용한 책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first~sixth'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5명의 외계인들이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에 왔다가 오염된 지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씩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의 책인데, 먼저 그림책의 내용을 외운 뒤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문장을 읊어주었더니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선생님, 그걸 다 외우셨어요?"
"너희도 다 외울 수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외울 수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봐."

두 번째로 읊어줄 때 아이들은 소리에 집중했다. 이 책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번만 들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질문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눈이 세 개예요!"
"파충류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커요!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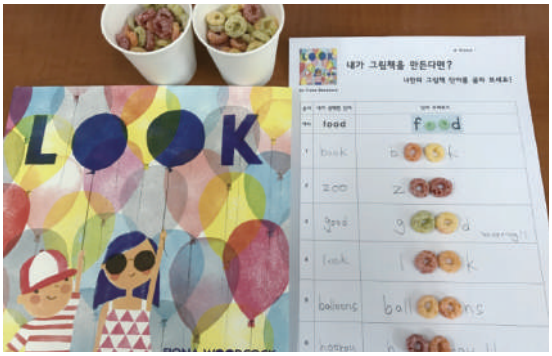
약력 이은주

- 現 서울선사초등학교 교사
- #따스의교육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운영
- @ttasbooks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 북클럽 따스, 네이버 카페 독서모임 운영
- 혼공스쿨 초등 집필진

아이들이 온갖 상상을 동원한 영어 문장을 쏟아내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외계인들은 왜 지구를 떠났을까?"
"더러워서요!"
"전쟁이 일어나서요!"
"지구인이 이상하게 생겨서요! ㅋㅋㅋ"

호기심을 잔뜩 일으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림책을 보여준다. 마침내 그림책을 확인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그림책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그림책을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 간식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 시간을 진행한다. 빅파이와 초코볼을 나눠주고, 빅파이 위에 초코



볼 5개를 올리도록 한다.

“이 빅파이가 뭘까?”
“비행접시 flying saucer요!”
“그러면 초코볼 5개는?”
“Five little men!”

아이들과 초코볼을 하나씩 입으로 넣으면서 그림책의 문장을 소리내 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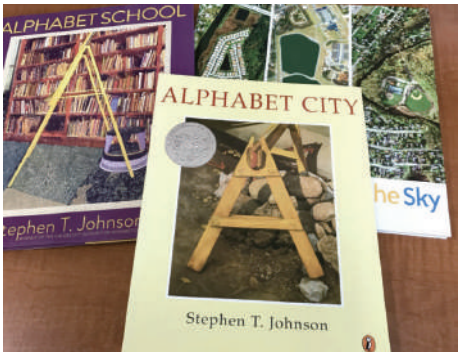
“The first little man flew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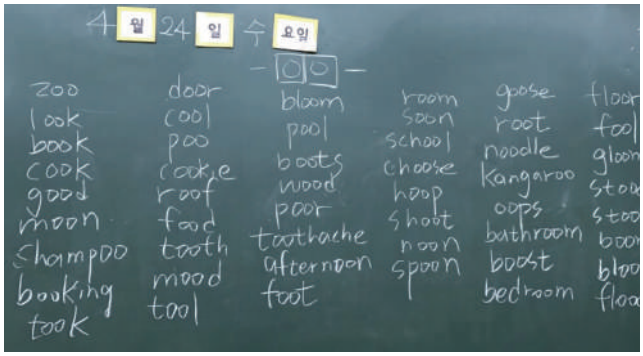
‘OO'가 들어간 단어로 브레인스토밍 - 『Look』

이번에는 파닉스 활동과 함께한 그림책을 소개해보겠다. 『Look』이라는 그림책은 ‘OO’가 들어간 영어 단어들만으로 구성된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그림책이다. 우선 그림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OO’가 들어간 단어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아이들은 신나게 칠판 가득 단어들을 쏟아낸다.

“food, moon, book, noon, soon, took, tooth, cook, door, floor, roof, cool, foot, good….”

6학년쯤 되니, 아이들은 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었다. 이 단어들을 하나의 창의적인 그림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체험해볼 수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 스스로 몇 안 되는 단어로 창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우리는 『Look』이라는 그림책을 읽은 후 스스로 몇 개의 단어를 선택해보았다. 그리고





'O' 모양의 시리얼로 단어를 꾸미고, 꾸민 단어의 시리얼을 먹어보기도 했다. 이 수업 이후부터는 'OO'가 들어간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시리얼 생각이 나지 않을까?

주변 사물이나 건축물에서 알파벳 모양 찾기 - 『Alphabet city』

영어 그림책 중 알파벳을 테마로 한 책들이 많은데, 고학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알파벳 책이 있다. 『Alphabet city』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건축물에서 알파벳 모양을 찾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다.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알파벳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수업 방식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Alphabet city』 책을 살펴본 다음, 전자패드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우리 학교에서 알파벳 모양을 찾아 사진으로 찍은 후 책으로 만들어보자고 하니 아이들은 열심히 알파벳을 찾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의 동생들에게 보여줬다. 학교 방송에서 『Alphabet city』 책을 간략히 소개한 후 6학년 형님들이 학교에서 찾은 알파벳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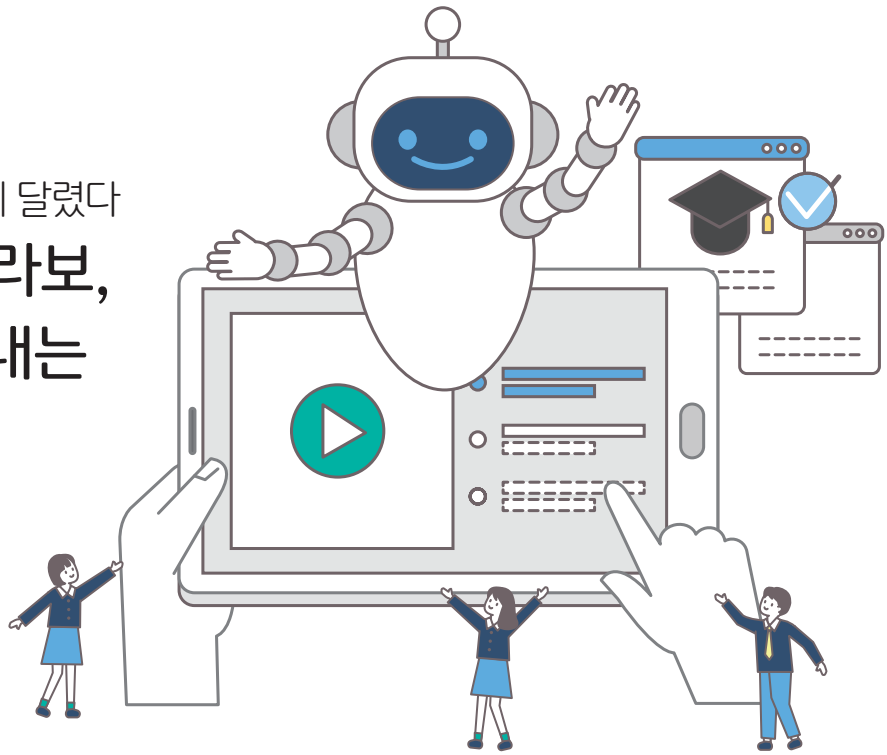
"이 사진은 6학년 3반 형님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알파벳이 보이나요?"
"우리 학교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찾아보세요."

6학년 아이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영어 그림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이 배운 쉬운 표현으로도 영어그림책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은 6학년이 끝날 때 학급별 영어문집에 담을 계획이다.
이렇게 원서 그림책을 정규 수업에서 활용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최고의 수업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 믿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할 즐거운 활동들을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학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이들아, 기대하렴!"

미래 교육, 코칭스태프에 달렸다

AI와 교사의 콜라보, 미래 인재 길러내는 코칭스태프

글.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멘토는 다방면에서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말한다. 2010년 멘토 열풍의 정점을 찍은 안철수 같은 인물이 그랬다. 안철수는 서울대를 나온 수재이며, 의사인 동시에 한 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욕심도 없어보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산이나 타던 무명의 박원순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 이는 역시 멘토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청년들은 멘토의 조언을 나침반 삼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좌표를 설정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달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리원'(Only-one) 원해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멘토 열풍이 사그라졌다. 선량하던 멘토가 탐욕스럽게 변했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멘토에게 하자가 생겨서가 아니다. 멘토가 말하는 '성공방정식'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멘티들이 알아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모두는 멘토를 알지만 멘토는 나를 전혀 모른다. 솔직히 말해 별 관심도 없다. 그들의 조언이 나에게 딱 들어맞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멘토의 성공 스토리는 과거의 산물이라 현재를 사는 멘티에게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이 하는 대로 살았다간 뒤처지기 딱 좋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 시대는 멘토를 닮은 제2, 제3의 멘티보다 '온리원'(Only-one)이 될 것을 요구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 코치가 역량과 잠재력 이끌어내

코치는 온리원을 키워내는 촉매로, 멘토의 바통을 이어받아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코치는 멘토처럼 다방면에서 뛰어나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를 뜻한다. 가령 프로야구팀 코치는 한 명이 아니다. 투수와 타격, 수비, 주루 등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 본인이 맡은 분야에 한정해 선수의 역량을 이끌어낸다. 또 멘토가 다수에게 조언한다면, 코치는 1:1이라 개별 선

수의 몸 상태와 재능에 맞춰 조언이 달라진다. 코치 자신의 성공 스토리는 선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선수 스스로가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에듀테크(Edutech) 도입으로 1:1 코칭 교육 길 열려

이러한 코칭 방식은 스포츠뿐 아니라 교육에도 접목된다. 코칭 교육은 개별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급당 학생이 30명에 달하는 학교보다 민간 과외를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 기술의 결합인 에듀테크(Edutech)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 수와 상관없이 1:1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수학·영어를 비롯한 정규 교과목,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 시험, 피아노·바둑 같은 취미활동까지 각 분야 별로 AI 코치가 24시간 대기 중이다. AI 코치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인간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과 달리 AI는 개별 학생의 실력에 맞게 진도를 나간다. 이 방식은 전교 1등과 꼴등 모두에게 유익하다. 다 아는 내용을 억지로 듣거나 진도를 따라가느라 진땀 뺄 필요가 없다.

인원·장소 상관없는 AI 교사

나아가 모르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고,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연계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천까지 해준다. 또 인간 교사는 시간당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돼 있으나, AI 교사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제한이 없다. 비용이 저렴하고 공부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만 있으면 카페든 내 방 침대 위든 그곳이 공부방이다. 학생 입장에선 확실히 가성비가 높은 교육 방식이다. 머지않아 AI 교사가 인간 교사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창의성·협동·커뮤니케이션, 인간 교사의 손길 필요

단 AI는 교육 코치로서 몇 가지 큰 결함을 갖고 있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다. 감성적인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데 AI는 이 부분에 취약하다. AI 교사는 영화 〈굿 윌 헌팅〉의 로빈 윌리엄스 같은 역할은 흉내도 못 낸다. AI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이 어릴 적에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반항기를 알아낼 순 있어도, 달래줄 수 없다. 동기를 부여하는 일도 교사의 몫이다. 창의성 또한 AI가 길러주기 힘든 영역이다. 물론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AI 〈바이센테니얼 맨〉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이는 공상과학일 뿐이다. 종합하면 창의성·협동·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여전히 인간 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멘토가 사라진 시대, AI와 교사의 콜라보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코칭스태프다.

약력 윤석진

- 現 머니투데이방송 교육산업 담당 기자
- 에듀테크 산업 동향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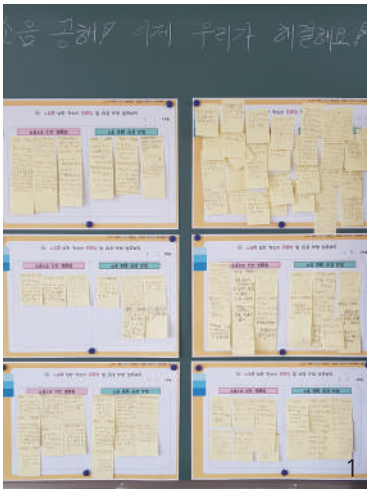
학생 삶의 문제를 역량 중심의 소프트웨어, 로봇 수업에 적용해보자

글. 최종원 충남 천안서초등학교 선생님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에 처음 등장한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탑재한 로봇 제작 활동은 선생님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이에 학교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과 교과서 속 소프트웨어와 로봇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례를 나눠보고자 한다.

실과 교과서 속 소프트웨어 어렵지 않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하면 C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교육(텍스트 코딩)을 생각하기 쉽다. 사실 실과 교과서 속 소프트웨어 교육은 언어교육이나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미래 역량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만 꼼꼼히 살펴본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학생 지도가 가능하다.



1.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토론 활동 산출물.
2. 학생들이 직접 측정해 작성한 소음지도.
3. 급식실에서 일정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안내하는 장치.

메이커 교육과 연계한 로봇 교육, 창의력을 키워주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로봇 교육은 단순 센서 체험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센서를 활용한 로봇 제작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실과의 발명 단원과 연계한다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센서로 작동되는 로봇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창작할 수 있다. 실과 교과서 속 로봇 교육을 메이커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역량을 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학생 주변의 생활 속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다

학교에서 겪는 문제를 수업 활동에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로봇 교육을 학교 내에서 찾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교과 간 융합 교육과정을 만들어 적용해보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소음 지도를 만들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토론 활동, 장치 제작 과정을 수업에 적용해보았다. 일련의 과정 중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로봇 교육을 활용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센서의 역할과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엔트리)의 활용은 학생들의 창의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소프트웨어와 로봇 교육, 막연한 두려움부터 없애자

실과 교과서 속 소프트웨어와 로봇 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와 로봇 교육을 학생 주변의 문제를 활용해 창의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적용해보면 어떨까?

약력 최종원

- 現 천안서초등학교 교사
- 2009 개정 교육과정 실과 교과서 집필 위원(비상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 교과서 집필 위원(비상교육)

테크빌교육의 SW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한

SW교육 선도학교 'SW Day' 캠프 운영 성공기

글. 양윤경 서울목원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은 SW교육 캠프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선생님은 코딩을 잘하시나요?"
"캠프에서 아이들이 흥미까지 얻을 수 없을까요?"

이제 막 졸업한 젊은 교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부터 SW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교직에 서게 된다. '나도 대학에서부터 기초 빌드업을 잘 준비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요즘 들어 부쩍 생긴다. 필자는 지난해 목원초로 전근하자마자 정보부장 자리를 맡았다. 1년간 SW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막막해하던 찰나에 학교 공문에 적혀 있던 '테크빌교육'이 눈에 들어왔다. SW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테크빌교육의 SW교육 팜플렛을 보고 망설임 없이 상담을 요청했다.

목원초가 SW교육 선도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테크빌교육은 그간의 SW 선도학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해주어 참 든든했다. 지난해 10월 'SW Day'를 앞두고 6개월 전인 4월부터 테크빌교육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SW교육 캠프 운영 노하우를 소개한다.

성공적인 SW교육 캠프의 노하우

1)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경험하게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부족한 예산과 시간이 발목을 잡았다. 운영사인 테크빌교육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고, 5, 6학년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육 장소도 각 장소에 따른 특징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효과가 컸다.

2) 아이들이 지루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캠프의 큰 묘미는 '체험'이다. 하지만 이 체험과 체험 사이에 긴 기다림을 준다면 아이들은 캠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동기부여도 감

약력 양윤경

- 現 서울목원초등학교 교사
- 서울교대 학사 및 서강대 교육공학 석사
- e-PBL 선도요원 교사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e-PBL 보조강사
- SW 선도학교 운영 주무

SW교육 프로그램 문의
alco@tekville.com
070-8282-0154

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목원초 SW교육 캠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인 지루할 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캠프는 총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학년씩 진행이 되었다. 총 4분반으로 구성된 캠프 인원들에게 1교시마다 로테이션을 돌며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구성]

5학년(10/30)	1분반	2분반	3분반	4분반
09:00~09:40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09:50~10:30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10:50~11:30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11:40~12:20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6학년(10/31)	1분반	2분반	3분반	4분반
09:00~09:40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09:50~10:30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10:50~11:30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레고위두 주차대회
11:40~12:20	레고위두 주차대회	햄스터 청소대회	코딩으로 목원초등학교 만들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아이들은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짧은 시간 안에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3) SW는 도구일 뿐, 절대 개발자가 되는 교육이 아니다의 메시지 전달

활동 중심의 교육은 항상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아이들이 SW 도구를 매 교시마다 바꿔 사용하고 문제도 달라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내가 코딩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도구를 통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햄스터 청소대회를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햄스터가 잘 청소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햄스터가 갖고 있는 단면적이 적으니 같이 뭉쳐다니며 단면적을 키워 청소를 잘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학생은 창의적이었던 부분이고,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디어를 흡수함에 따라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나의 활동으로 아이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 절대 코딩을 한다고 해서 개발자나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를 잘 이용해보자

많은 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일단 먼저 구입해버린 교구들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괜히 이 교구를 샀어",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도구는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해당 교구를 잘 활용해 계획을 하다보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됐다

캠프를 딱

복잡하고 어려운 캠프 준비? NO! 짐을 덜어드립니다!
SW교육 주간을 위한 맞춤 캠프가 가득!
QR코드를 찍어 바로 확인하세요!

첫번째

무료 캠프 컨설팅

캠프 컨설팅
무료 상담 진행 중!
지금 신청하세요!

두번째

남은 예산 찰떡 맞춤

남은 예산이 걱정인가요?
고민하지 마세요!
테크빌이 찰떡같이
맞춰드립니다!

세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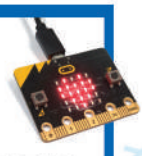
보유 교구 기반 사용

학교가 보유한 교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캠프 운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SW교육 선도학교 캠프 프로그램 소개

SW 캠프

<코딩 갤럭시> 코딩 챔피언스 리그
<햄스터 로봇> 도심 속 로봇 축구
<언플러그드-엔트리> SW 특공대
<레고EV3> 레고를 활용한 자율 주행 자동차



메이커 캠프

<웨어러블 아이템 제작> 디지털 패션 디자인
<RC카 제작> RC카 레이싱 대회
<IoT 하우스 제작)> 내가 꿈꾸는 IoT 하우스
<인공지능 스피커 제작> AI! 노래를 들려줘!

부모공감

영유아 부모-자녀관계검사 오픈 beta

바쁜 일상과 육아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솔루션!

드디어 영유아 **올인원(all-in-one)** 검사가 나타났다!!

아이
- 기질특성
- 발달특성
- 생활스트레스

부모
- 양육스타일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궁금한 부모에게
부모공감 영유아 부모-자녀관계검사를 추천 드립니다.

기질, 양육방식, 교육환경 등에 관한 개인별 정보제공

자녀기질+부모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부모-자녀관계검사를 통해 **양육스타일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점검해 보세요.**

본 검사는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베타서비스 기간에만 검사비 ~~8,000~~원 무료

우리 아이의 기질과 나의 양육스타일이 궁금하다면? www.bumoschool.com

영유아부모자녀관계검사

anthonbeeke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SUZANNE KASLER TIMELESS STYLE
CHIP KIDD BOOK TWO
Japanese Gardens
Bread
HOW TO BOIL AN EGG
PAUL KLEE
MASS
BREAKFAST LUNCH TEA
SECRET KARAVAN
MARC RYDEN
100 GETAWAYS
FULLMOON
Fat-free
SANNE SANNES
INCOMPARABLE COUPLES
Patricia Urquiola
anthonbeeke
Eames design
BLUE BLOOOD
YOU'RE INVITED!
The Latin American Photobook
How to Make a Nation: A Manual Guide
English Deutsch Français
HASSELBLAD MASTERS
URBAN DESIGN & THE 20TH CENTURY ARCHITECTURE
NEW YORK CHICAGO PARIS
BRUSSELS VIENNA
LYON AMSTERDAM
MOSCOW ROME
HIROSHIMA BUENOS AIRES
LOS ANGELES MEXICO CITY
HAVANA BRASILIA HELSINKI
BARCELONA MADRID
DUBAI LILLE LAGOS
LISBON LAS VEGAS
HONG KONG
SYDNEY
CONCRETE BUILDINGS
BEACHSIDE BOHEMIAN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발자취를 더듬다

글. 김현정 티처빌연수사업부 선임

러시아문학은 세계 문학사에서 아주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톨스토이·푸시킨 등으로 대표되는 러시아문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만큼 어렵고 분량도 너무 길어 버겁다는 선입견과 고정관념도 존재한다. 이런 러시아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마음을 울리는 화법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와 사랑에 빠진 석영중 교수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나보았다.

약력 석 영중

- 現 고려대학교 노어노문과 교수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문학박사
-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
-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 백상번역문학상 수상
- 푸시킨 메달 수상
- 고려대학교 교우회학술상 수상
- 저서 『러시아 시의 리듬』,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러시아문학의 맛있는 코드』 외 다수
- 역서 『푸시킨 문학작품집』, 『마야콥스키 선집』, 『톨스토이의 첫걸음』 외 다수

Q. 교수님의 근황은 어떠신가요?

지난 5년간 도스토옙스키 삶의 발자취를 모두 밟아보겠다는 목표 하나로 러시아·카자흐스탄·유럽 등지를 돌았습니다. 이러한 여정들의 기록을 작년 한 해 동안 《중앙SUNDAY》에 도스토옙스키의 문학과 삶 〈매핑 도스토옙스키〉란 제목으로 연재했습니다. 1년에 걸쳐 총 48회 연재했는데, 그 내용을 묶은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어요. 지난 6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박경리 문학제'에 다녀왔고요, 작가 박경리를 기리는 행사로 저는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하는 강연자로 참가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이 박경리 선생님의 책을 우리말로 낭송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Q. 어떤 계기로 러시아문학에 매료되셨는지요?

대학교 1학년 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책에 왠지 모르게 끌렸고,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러시아가 냉전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국적인 러시아의 신비로움에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를 러시아어로 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러시아문학에 매료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Q. 우리가 러시아문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학은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정보를 주는 대신 공감의 기회를 줍니다. 러시아문학 역시 무수한 인물과 스토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체험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러시아문학을 읽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인간의 내면, 즉 나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들여다봐야 하며 이런저런 인간군상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학밖에 없으며 러시아문학 속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흉악한 사람 모두 있는데, 결국 '인간은 다 그런 것이구나!' 하며 인생을 관조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는 인생에 대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적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괜찮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Q. 교수님께서 도스토옙스키가 실제로 머물렀던 공간을 직접 탐방한 경험을 집필한 책 『매핑 도스토옙스키』가 얼마 전에 출간됐다고 하셨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자유를 꿈꾸며 바라보았던
러시아 옴스크의 이르티시강.

러시아문학은
다른 문학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에 비해 조밀하고
촘촘해 깊이가
있습니다.

[2학점] 러시아 문학,
인간을 말하다

러시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딘가요? 혹시 러시아 여행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모스크바가 제일 좋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전통 러시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가게 되면 기차를 타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코스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고속기차를 타고 5, 6시간 정도 달리는 것인데, 광활한 러시아 대륙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여름에 여행을 하는 거라면 밤 열차를 추천하고요, 밤 열차는 고속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밤 열차지만 밖은 어스름한 백야입니다. 하늘은 회색, 자작나무 숲은 검푸른 색, 땅은 흑토인 아름다운 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관을 바라보며 러시아 차 또는 보드카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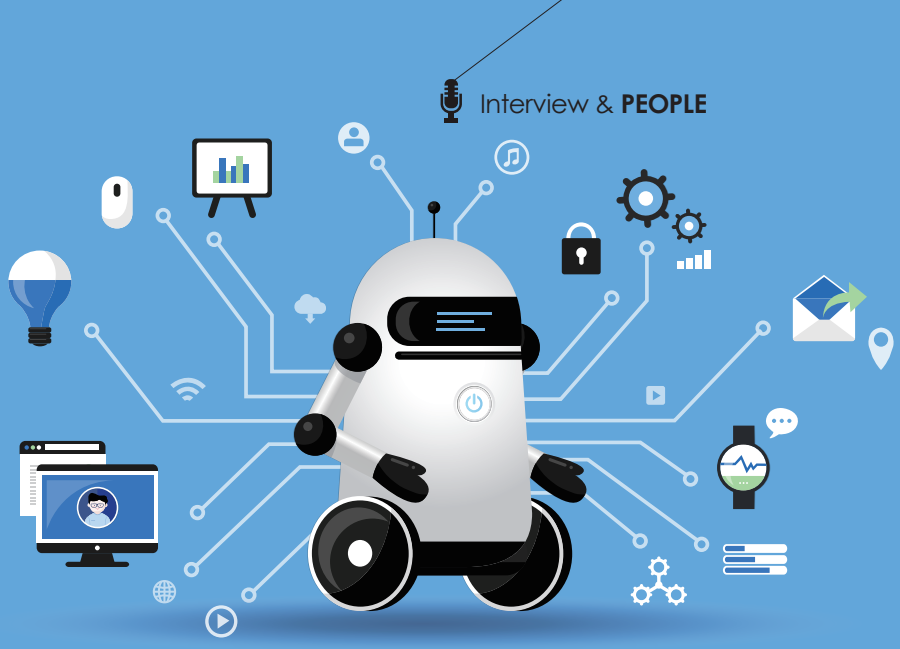
러시아 여행 시 팁이 있다면, 알파벳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면 무척 유용할 듯합니다. 영어 소통이 대체로 가능하므로 몰라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나 관광명소 랜드마크가 대부분 러시아정교와 깊이 관련이 있으므로 러시아정교에 관한 간단한 책자를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티처빌연수 〈러시아문학, 인간을 말하다〉를 수강하신 선생님들께서 강의에 소개된 책을 읽고 싶고, 실제로 구매해 읽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러시아 문학작품 중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죄와 벌』, 톨스토이의『이반 일리치의 죽음』, 체호프의『지루한 이야기』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문학은 다른 문학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에 비해 조밀하고 촘촘해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라고 여길 수 있는 건 거의 없으며 어떤 스토리라도 두 번 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냥 읽히진 않지만 보상은 확실해 맛으로 치면 아주 풍요로운 맛이 납니다. 또한 길이가 길어 다른 나라에서 장편인 게 러시아문학에서는 중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결코 대중적인 문학은 아니지만 올해 목표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Q.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도스토옙스키에 관련된 책을 고민 중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쓰고 싶은 주제는 많습니다. 현재는 여러 방면으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해야 할 게 많고, 읽어야 할 게 많습니다. 곧 개강이라 전공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게 기대됩니다. 학생들을 통해 내가 못 보는 것도 보고 배울 점도 많아 재미있습니다. Ⓣ



책 읽기와 글쓰기는 삶의 촉수를 갖는 것

책과 글이 피어나는 교실을 꿈꾸며

글. 양효준 경기 안양서초등학교 선생님

4차 산업혁명은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AI가 많은 것을 대체할 것이며, 이제는 학생들에게 미래 시민으로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흐름 속에 SW교육, 메이커교육, 코딩교육 분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책과 글이 피어나는 교실'(이하 책글피) 모임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책 읽기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대인의 절반 이상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지만, 애플의 수장이었던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휴대폰 대신 저녁이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한다. 왜 스티븐 잡스는 자녀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대신 책을 읽게 했을까?

독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연구하는 '책글피'

3~4학년 군

5~6학년 군

'책글피' 모임은 2016년 시작했다. 포천지역 저경력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국어수업을 함께 연구했다. 배움중심수업 교사공동체 '깊이 읽기 연구회'에서 시작되어 2018년에는 '책글피'라는 이름을 바꾸고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나눔과 함께 독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 자료를 3~4학년 군, 5~6학년 군으로 나눠 각각 연구해 배포했다.

약력 양효준

- 現 안양서초등학교 교사
- 책과 글이 피어나는 교실 연구회 공동대표
- 교과서 모니터링단(국어)
- 깊이 읽기 연구회 회장
- 저서 『이제는 깊이 읽기』

책글피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구모임.

'책'을 읽다

스마트폰 게임은 즉각적이고 화려해서 학생들이 손을 떼기가 어렵고, 유튜브 속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은 유쾌하고 신선해서 눈을 떼기가 어렵다. 반면 책 읽기는 게임에 비해 책을 덮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 유튜브의 영상처럼 즐거움이 즉각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책 읽기보다 스마트폰 게임과 영상을 좋아하게 된다.

우리는 책 읽기의 좋은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겹도록 들었다. 책글피는 책 읽기를 목적과 수단이 아닌 의미와 과정으로 본다. 책은 다른 누군가의 삶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알아가고, 경청하는 과정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침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책 읽기의 재미를 알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 속의 등장인물과 나를 비교해보는 과정, 등장인물이 겪은 사건과 나의 경험을 견주어보는 과정, 책 속에 나온 배경과 내가 사는 배경을 비교해보는 과정처럼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

'글'을 쓰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활동은 '글쓰기'다. 글쓰기 수업을 할 때면 "몇 줄 써요?"라는 물음을 꼭 듣는다. 글을 쓰는 것이 귀찮고, 어려워하는 학생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건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 속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덟 단어』의 저자 박웅현의 표현으로는 삶의 촉수를 갖는 것이다.

'피'어나다

아이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 느리지만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쩌면 스티븐 잡스가 그의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탁자는 최신 정보의 장이 아니라 책과 글이 피어나는 곳일지 모르겠다.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교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등굣길의 민들레나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책글피는 이런 생각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다. 2014년 함께 시작한 책글피 모임이 책 읽기와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피어나겠다.

2주에 한 번씩 연구하는
책글피 모임의 연수
후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QR코드로 들어오세요!

‘무엇을? 어떻게? 조건은?’, 이 세 가지를 도식화하라

대입 논술의 첫 단계, 논제 분석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글. 강태호 경기 안양 성문고등학교 선생님

오는 11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31개 대학이 일제히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막바지 수능과 논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논술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논술고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 대입논술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논제’ 분석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대입 논술문 쓰기의 절차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입 논술문 쓰기의 절차다.

[논술문 작성의 절차]

먼저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논술 고사장에서 시험문제를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펜을 들고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논술시험의 문제를 우리는 흔히 ‘논제’라고 한다.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문제의 의도에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논제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논제를 분석할 때는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무엇에 대하여 쓰라는 것’인

[1학점] 학부모, 교사, 학생을 위한 대입논술의 실제

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요약하라'고 했는데 줄거리를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설명하라'고 했는데 서론·본론·결론을 갖추어 쓸 필요도 없다. 따라서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술 문제에는 대부분 요구사항이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무엇을 참고하라든지, 어떤 것을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 형식의 논제 살펴보기

이해하기 쉽게 다음의 논제를 먼저 살펴보겠다.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 1,000자(±10%)

1) '(나)의 논지'는 글쓴이의 주장 정리

이 논제는 많은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 형식이다. 이 논제는 '제시문 (나)의 논지'와 '제시문 (다)의 해설'이라는 두 가지를 쓰라고 하고 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두 가지 중의 하나만 답을 쓴다면 큰일이다. 두 가지를 쓰는 방법도 다르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혀라'는 제시문 (나)의 논지를 그냥 정리해서 쓰면 된다. '논지(論旨)'라는 것은 '논술문의 주장', 즉 글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느냐가 논지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에서 주제는 '자유무역협정'이고 주장, 즉 논지는 '자유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를 읽고 글쓴이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쓰면 된다.

2) '(다)를 해설'은 있는 그대로 '풀어서 말하라'는 것

한편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는 제시문 (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말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설할 때는 자신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또한 이 논제에는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다. 바로 '이것을 참고하여'이다. 즉 '제시문 (나)의 논지를 쓰고, 그 논지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이 없다면 제시문 (다)의 해설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설의 잣대를 제시문 (나)의 결론으로 삼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해설의 방향 또한 일정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력 강태호

- 現 안양 성문고등학교 교사
- 티처빌교육연수원 강사
- 아주대 입학사정관 자문교사
- 건국대학교 정책자문 패널위원
- 선문대, 극동대 대학입학전형 자문위원
- 특목고 입학전형 선발위원
- EBS장학퀴즈 출제위원

3) '1,000자(±10%)'는 900~1,100자로 끝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수 제한이다. 논지를 밝히는 것과 해설하는 것을 쓰는데 '1,000자(±10%)'로 쓰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답안이 900~1,100자로 끝나야 한다. 그것보다 많거나 적다면 채점하는 분들이 감점을 할 것이다. 거의 모든 대학의 논술문제에는 이런 자수 제한이 있다.

4) 간단한 도표로 정리

이런 내용을 간단한 도표를 활용해서 정리해보겠다.

논제 분석		
무엇을?	제시문 (나)의 논지를	제시문 (다)를
어떻게?	밝혀라.	해설하라.
조건은?	– 답안분량은 띄어쓰기 포함 1,000자(±10%)로 할 것. – 제시문 (나)의 논지를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라.	

5) '무엇을? 어떻게? 조건은?'에 대한 결론

논술 문제를 읽고 위와 같이 도표로 정리한다면 논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답안의 첫 번째 단락에 무엇을 쓰고, 두 번째 단락에 무엇을 쓸지도 분명해진다. 이 문제의 첫 번째 단락에는 제시문 (나)의 논지를 쓰고, 두 번째 단락에는 제시문 (다)의 해설을 쓰면 된다. 글자수도 단락별 500자 정도로 예상하고 쓰면 된다. 물론 제시문 (다)는 (나)의 논지를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을 좀 더 늘려서 2, 3단락으로 나누어 써도 된다.

실제 기출문제로 논제 분석·연습하기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로 논제를 분석하고 연습해보자.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제시문 (라)의 두 주장에 근거해 〈표 1〉, 〈표 2〉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을 기술하고, 제시문 (나), (다)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연구 전체(주장 및 결과)를 평가하시오.(1,000자 내외)

▼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면 논제 분석에 유리하다

무엇을	① <표 1>, <표 2>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을	② 연구 전체(주장 및 결과)를
어떻게?	① 기술하시오.	② 평가하시오.
조건은?	– 제시문 (라)의 두 주장에 근거하여 <표 1>과 <표 2>를 분석할 것. – 제시문 (나), (다)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연구 전체를 평가할 것. – 답안 분량은 1,000자 내외로 할 것.	

다양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맞춤형으로 만나보세요!

즐거운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1. 다양한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 인성 / 진로 / 교육연극 / 예방 / SW·메이커
2. 예산 맞춤 견적	예산이 많아도 적어도 계획 가능! (어깨동무사업, 기초학력제고, 일반고역량강화 등)
3. 맞춤 교육활동 계획	수요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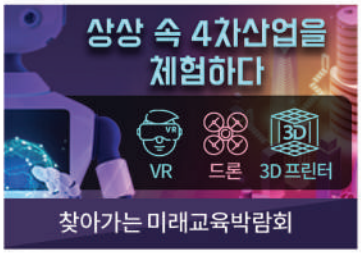
교육활동계획
학교 맞춤형 교육계획서, 견적서 제공

교육운영
특색 있는 교재와 교구, 전문강사 파견

결과보고
교육내용 및 학생교육 만족도 분석

정산 및 행정처리
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가능 (행정부담 최소화)

인기 교육 프로그램



교육문의 즐거운학교 070-8282-0140 www njoyschool.net

이투데이 (2019.06.11)

테크빌교육 '쌤동네', 강사 섭외 서비스 '쌤찾자' 오픈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 교사 콘텐츠 공유 플랫폼 '쌤동네'가 학교 및 모임,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강사 섭외 서비스 '쌤찾자'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집단지성, 팀워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교사 학습공동체 또는 교사 연구회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쌤찾자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ICT/스마트, 진로인성, 학생교육, 인문교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와 강의 요청자, 강사와 오프라인 강연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학교나 교사모임 등 강사를 찾는 누구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강사들은 쌤찾자 강사 프로필 등록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다. 강의 요청자는 강사 프로필에 등록된 강사의 이력뿐만 아니라 저서, 교육상품, 강의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보고 직접 섭외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쌤찾자는 오픈을 기념해 30일까지 강사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 전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과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명함케이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쌤찾자 관련 기대평을 작성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휴대용 선풍기(20명)와 배스킨라빈스 블록팩(100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상무는 "많은 학교와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연구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쌤찾자를 통해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과 강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모임이 좀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많은 현장 교사들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조선에듀 (2019.06.12)

테크빌교육, 2019 온라인 코딩파티에서 '코딩 갤럭시' 선보여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2019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서 '코딩 갤럭시(Coding Galaxy)'의 블록코딩 미션을 선보이며 '코딩 갤럭시' 알리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온라인 코딩파티'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다. 2015년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두 시즌씩 개최해 지난해에는 참가인원이 110만명을 돌파했다.

테크빌교육은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에서 3D 모바일 게임형 블록코딩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울 수 있으며, SW과학의 '순차'와 '분해'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코딩 갤럭시'의 행성 모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딩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코딩 갤럭시' 앱과 PC를 통해 블록 기반 코딩 퍼즐을 풀며 순차 개념을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10개의 코딩 미션, 수료인증서 발급과 학습자 통계분석, 학습지, 교사용 지도안과 정답지가 제공된다. 학습 소요시간은 60분이다. '코딩 갤럭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컴퓨팅 사고력과 프로그래밍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업 게임으로 자신이 속한 팀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에듀 교육정보팀

에듀동아 (2019.06.27)

테크빌교육 티처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가는 수업 방해' 직무연수 개설

테크빌교육이 운영하는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은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가는 수업 방해'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수업 방해'는 교권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티처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업 방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수업 방해에 대한 예방법부터 해결책까지 현직 교사들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티처빌의 '수업 방해' 연수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중심의 생생한 수업 방해 사례를 담았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 중, 수업 후 등 각 상황 별로 다양한 성향을 가진 교사들의 대응법을 소개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수업을 방해 받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터득할 수 있다. 초·중등 현직 교사 6명이 토크 형태로 진행하는 '수업 방해' 연수는 총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처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테크빌교육은 수업 방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담은 '수업 방해' 도서도 출간했다. '수업 방해' 도서와 연수 제작에 참여한 유철민 교사는 "수업 방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좋은 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업 방해 연수와 도서에서 학급경영 중 특히 수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폭넓게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Koita 월간 〈기술과 혁신〉 (2019.07)

보람과 성취로 '백년대계' 교육의 미래를 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해 교육 생태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더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 학교 교육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치와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학생 수 감소, 미래 사회의 변화, 직 업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선구자로서 공교육 분야에서 교사 연수, 학생 교육, 부모 교육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테크빌교육㈜(이하 테크빌교육)의 이형세 대표를 만나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이러닝 및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끈 선도자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테크빌교육은 2001년 설립 이후 유·초· 중등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사업부터 시작해 학생, 학부모 대상의 통합적 교육에 집중해 왔다. 특히 주력사업인 '티처빌원격교육 연수원'은 2002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후 연수원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받고, 5회 연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교육연수원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신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듀테크 선도기업'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또한 이러닝을 넘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약 19년간 이러닝을 핵심역량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교육사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형세 대표는 교육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또한 크다.

변남석 교수, 이정선 전문작가

머니투데이 (2019.07.09)

테크빌교육 티처빌, 'T라운지 포인트몰' 오픈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은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T라운지 포인트몰'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T라운지 포인트몰'은 티처빌연수원과 쌤동네, 티처몰에서 상품구매, 후기등록,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연수, 교구,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티처빌 △통합회원 최초 가입 시 1,000포인트 △티처빌연수원에서 직무·자율·상시연수 신청 시 결제금액의 2% △연수 교재 및 티처몰 상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1%를 적립해준다. 후기를 등록하면 연수 한 개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적립되며, 각종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티처빌은 포인트몰 오픈을 기념해 오는 26일까지 직무연수 신청 시 포인트가 두 배 적립되는 '더블포인트 다드림' 이벤트를 비롯 다양한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21일까지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콘텐츠, 서비스, 교육상품 등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이들에게 1,000포인트를 증정하며 31일까지 포인트몰 기대평을 남긴 후 공유 시 최대 600포인트 적립과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뜨 상품권 5천원권(100명)을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T라운지 포인트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 11시, 14시마다 연수, 교구, 상품 등을 파격적인 포인트가로 선보이는 '타임딜' 프로모션을 실시해 관심을 끈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며 1,000포인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타임딜'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하다.

고문순 기자

매일일보 (2019.07.16)

테크빌교육 키즈티처빌, '변경된 어린이집 평가제 완벽대비' 직무연수 개설

테크빌교육의 영유아 교사 교육 브랜드 '키즈티처빌'은 어린이집 평가의 무제 시행에 맞춘 '변경된 어린이집 평가제 완벽대비' 온라인 과정을 어린이집 교사 대상 교육기관 중 최초로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평가제 시행 첫 해인 올해 9월부터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에서 현장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변경된 '어린이집 평가제' 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이 개설돼 주목된다. 키즈티처빌의 '변경된 어린이집 평가제 완벽대비' 온라인 연수 과정은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님의 노하우와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을 통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특히 온라인 연수 과정 수강 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서류도 함께 제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가 준비를 돕는다. 향후 평가 준비를 어려워하는 어린이집을 위해 맞춤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정은 총 20차시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배경 및 개정내용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원장의 리더십 등 우수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키즈티처빌의 직무교육 사이트인 키즈에듀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나기호 기자

세계일보 (2019.08.11)

유튜브 도전하는 교사들 vs 얼굴 가리는 행정공무원

◆ 유튜브에 도전하는 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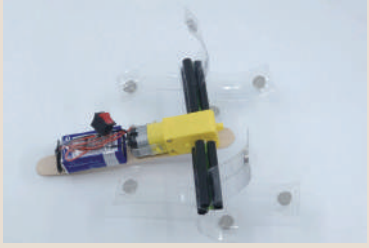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교사 유튜버를 둘러싼 겸직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관련 지침을 마련하며 교사들이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에서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934명의 교원이 976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90% 이상은 구독자가 100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당수 교사 유튜버가 수익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교사들은 유튜브 수익보다 학습자료, 학생과 소통 등 교육교재나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튜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적지 않다. 유튜버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로 꼽힐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교사 지원 플랫폼 '티처빌'은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관련 강의들이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오는 9월말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제작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티처빌을 운영하는 '테크빌교육' 이성희 팀장은 "교사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활용 능력) 연수를 준비 중"이라며 "많은 현직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며 교육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전자신문 (2019.08.27)

[주니어 메이커 되기]〈9〉주니어 메이커의 앙트프러너십 함양-웜기어 키트



주니어 메이커 되기 연재가 어느덧 마지막 회가 됐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한 만남으로 우리 친구들이 메이커 정신을 이해하고 메이커 되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진짜 주니어 메이커가 되기 위한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나요? 우리는 단순히 만들기를 통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 주니어 메이커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 직업이 사라지고 재정의되고 새로 생겨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 활동은 웜기어를 활용한 메이킹입니다. 설명서를 통한 만들기 시간이 아닌 주니어 메이커로서의 메이커 정신을 발휘하는 메이킹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웜기어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과 관계성을 찾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우선, 기어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기어란 둘 이상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면서 회전력이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어 가운데서도 웜기어는 둥근 톱니바퀴를 막대의 나선형 홈에 끼워 둥근 톱니가 돌면서 막대를 회전시키는, 힘을 가하는 방향과 전달 받는 방향이 수직인 형태의 기어입니다. 힘을 덜 들이고 회전 운동을 만들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혹은, 힘을 절약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웜기어 특성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주니어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앙트프러너십은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단어죠. 영어와 프랑스어의 합성어로, 번역하자면 '기업가정신' 입니다.

자료=이효진 테크빌교육 융합교육사업부 수석연구원

2019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7기	**4학점**	**09월 11일**	**10월 22일**	**10월 19일**	**10월 25일**
	3학점	09월 04일	10월 08일		10월 11일
		09월 18일	10월 22일		10월 24일
	2학점	09월 04일	10월 01일		10월 04일
		09월 18일	10월 15일		10월 17일
	1학점	09월 04일	09월 24일		09월 25일
		09월 18일	10월 08일		10월 09일
8기	**4학점**	**10월 16일**	**11월 19일**	**11월 16일**	**11월 22일**
	3학점	10월 02일	11월 05일		11월 07일
		10월 23일	11월 19일		11월 21일
	2학점	10월 02일	10월 29일		10월 31일
		10월 16일	11월 05일		11월 07일
		10월 30일	11월 19일		11월 21일
	1학점	10월 02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16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0일	11월 12일		11월 13일
9기	**4학점**	**11월 06일**	**12월 17일**	**12월 14일**	**12월 20일**
	3학점	11월 06일	12월 03일		12월 05일
		11월 20일	12월 17일		12월 19일
	2학점	11월 06일	11월 26일		11월 28일
		11월 20일	12월 10일		12월 12일
		11월 27일	12월 17일		12월 19일
	1학점	11월 06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0일	12월 03일		12월 04일
		11월 27일	12월 10일		12월 11일
특별기수	3학점	12월 04일	12월 24일		12월 27일
	2학점	12월 11일	12월 24일		12월 27일
	1학점	12월 11일	12월 24일		12월 26일

※출석 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티처빌

언제든! 원할때 바로 듣는

상시연수 OPEN!

2019년 9월 2일 ~ 2019년 12월 26일

결제하고 바로 연수 학습을 할 수 있는 '상시연수' OPEN!
2019년 9월,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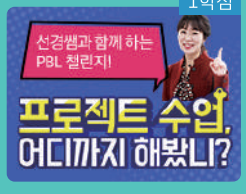
상시연수란?

기수별 연수의 한계를 벗어나 시작과 종료를 선생님이 정할 수 있는 직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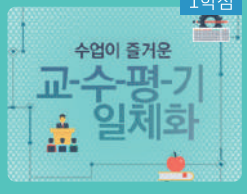
- **기간 상관 NO!** 바로 수강 가능
- 이수증 **바로 출력** 가능!
- 연수 모두 **수강 후 즉시 종료**
- **매주 금요일 NEIS 보고**

상시연수 리스트

최성애 박사가 전하는
애착 심리학



프로젝트수업,
어디까지 해봤니?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
-평가-기획의 일체화

NEXT GREEN
내일을 만드는 오늘

2020-2022 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이해편)

위기탈출 넘버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안전 교육

설민석의
히스토리텔링

교사의 월급통장을
사수하라!

쉽고 재미있는 학교 속
다문화 교육

야나두
리얼 스피킹 1

언제든! 원할 때! **바로듣는 상시연수 바로가기**

2019년 티처빌 신규과정 Coming Soon

2020년 개정 누리과정 대비 과정

2학점

행복한 두드림, 유아 학급솔루션 - 유아 학급운영, 어떻게 할까?

이은주
새뜸유치원 교사

정유진
사람과교육 연구소 대표

홍표선
소명유치원 원감

강의 개요

올바른 학급운영은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임과 동시에 가장 큰 숙제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고경력 교사들조차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다. 본 연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할 노하우를 현장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냈다.

강의 특징

- 딱딱한 이론 위주가 아니라 현장교사들이 학급운영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팁들만을 모아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
- 유아 학급운영을 고민하는 예비, 신규교사들의 문제해결 기술 배양 – 당연시했던 지도방법 또한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학급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경력교사의 성장 지원

강의 개요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제 학교를 넘어 뜻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 서로가 겪었던 문제들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들은 각자 겪은 문제와 고민을 털어 놓았다. 본 연수에서는 실제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던 사연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소 민감한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미 겪은 혹은 겪게 될 문제들이기에 솔직하게 얘기하며 신규교사라도 쉽게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처법을 제시한다.

강의 특징

- 천 명 이상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한 내용 구성
- 도서 『교사 119』의 저자가 SME로 참여하며, 도서에 없는 내용 추가와 도서에 제시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차별화된 연수 콘텐츠 제공
-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민감한 문제(학부모 항의, 동료 교사와의 소통, 학생들의 정신적·성적인 낯선 행동) 사례를 공유하며 대처법을 제시

교사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하자!

2학점

위기의 교사를 구하라! 교사119

왕건환

現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 공저

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A to Z

1학점 우리반, 유튜브 채널이 되다

강의 개요

영상은 소리·문자·사진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며, 이제는 마치 언어처럼 또 다른 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공유·확산의 가치와 결합하여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원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어른들은 너무나 쉽게 영상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학생들을 우려 섞인 눈빛으로 보며 막으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무작정 막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영상을 올바르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과 바람직한 정보통신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상의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수는 영상제작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수업 설계 경험을 제공한다.

강의 특징

- 유튜브 영상 콘셉트의 콘텐츠로 쉽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연수
- 기본적인 영상 촬영 및 편집 방법부터 수업에서 영상 활용 방법,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영상을 통해 수업을 설계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의 경험과 수업 사례 제공

교사를 위한 유튜브의 모든 것!

1학점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브 브런치

강의 개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구글 유튜브'라고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 및 교육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교사 유튜브 활용을 장려하고 겸직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유튜브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연수는 '유튜브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교사로서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고, 제작하는 방법까지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강의 특징

- 구글 코리아와 함께 하는 유튜브 교육 프로젝트, '유선생 아카데미'의 대표 교사와 함께하는 연수
-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듯한 쉽고, 재미있고 유쾌한 강의
-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꿀팁 대방출

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 'S.T.E.P Magic' 선생님들.

짠~ 사라졌다 나타나고, 나타났다 변신하고

교육 마술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

글. 조상희 경기 남양주 판곡초등학교 선생님

교실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항상 가야만 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공간에서 저를 만나는 그 순간만이라도 특별한 공간이 된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마술이 있는 교실로 여행을 떠나보실래요?

카퍼필드의 마술을 보며 키운 막연한 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설날이나 추석에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라는 마술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마술쇼를 펼쳤습니다. 그 멋진 장면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이 현실세계에 나타나고,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지고, 텔레비전 속의 마술사가 텔레비전 밖의 내 생각을 읽고 맞추던 그 시간은 만화나 동화, 오래된 이야기 속의 상상이 현실세계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상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마술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술을 배우고 보여주던 1년간의 행복

2005년 군대에 다녀와 교직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듬해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던 마술을 배울 기회를 찾다가 우연히 경기 남양주 지역에 교사마술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의 기초부터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술을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마술은 저에게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마술을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마술을 배우고, 보여주는 1년 동안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술을 수업에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마술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래 이게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처음 담임교사로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된 기념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이들은 편지와 함께 제가 몇 가지 카드 마술을 가르쳐줄 때 선물로 주었던 카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숙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첫 공연

다양한 마술도구를 사서 모으고, 나름대로 마술 관련 영상을 보면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장내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아이들과 방과 후 마술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아이들과 무대 마술 공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아이들도 처음인지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다가 '이불킥'을 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공연을 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고, 그 공연 이후로 전학을 갔던 당시 4학년 학생이던 아이는 8년이나 지난 지금도 스승의 날에 편지와 함께 연락을 합니다. 공연장이나 텔레비전,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마술을 교실이라는 평범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교실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같은 장소가 되어주는 특별한 경험의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마술

2009년에 부산에서 '부산국제마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 교육마술 모임을

약력 조상희

- 現 남양주 판곡초등학교 교사
- 경기도 초등일급정교사 교육마술 강의
- 서울, 인천, 충남, 전북, 울산, 강원 초중등 교사 교육마술 강의
- 전국교육마술연구회 스텝매직 부회장
- 전국 초중등 학생 창의마술 교육
-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메인공연 및 과학마술 운영

1. 공연하는 학생의 모습.

2.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사진이 완성되는 마술. 반 고흐의 이야기와 연결해 감동을 주는 마술이다.

3. 멘탈 마술을 시연하는 장면.

함께하고 있는 김택수 회장과 공연을 보러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마술사들의 공연을 보다가 마술이라는 것이 백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마술에 어떤 이야기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같은 마술도 가치가 달라지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영화나 공연을 볼 때 집중하는 것처럼 마술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차츰 수업에 한 가지씩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도입부에 이를 사용하면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수업 전체의 집중도도 무척 높았습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이나 장학사 공개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가끔은 마술이 너무 신기해서인지 수업보다 마술자체를 더 기억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할 때 유용한 '멘탈 마술'(Mental Magic)

2015년부터는 마술 중에서 '멘탈 마술'(Mental Magic)을 공부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탈 마술은 비둘기나 불 같은 화려한 무대 마술과 달리 사람의 생각을 읽고 맞추거나 예언을 해내는 마술입니다. 2009년 부산국제마술대회에서 '료'(RYO) 마술사의 공연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2014년부터 그에게 멘탈 마술을 배워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멘탈 마술은 상담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거나 가장 고민되는 것을 맞출 때 상담하는 학생은 많이 놀라워합니다. 이후 상담은 정말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지금도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학생과 상담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기 좋은 종이지갑 마술

제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마술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학년이나 수업에 따라

3

다른 마술을 사용하지요.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 가능한 마술은 단연 종이지갑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수업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단어나 문장을 집중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술의 3대 요소인 '나타나기, 사라지기, 바뀌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마술입니다. 예를 들어 빈 종이에서 수업 주제 키워드가 나오거나 잘못된 수업 주제 단어가 올바른 단어로 바뀌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단어를 기억합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 아이들까지 모두 즐거워하는 마술입니다.

잘 전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마술은 나의 필살기

마술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인 교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신기함과 높은 집중도를 만들어줄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수업을 더 잘 전달하고, 잘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필살기입니다. 마술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나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알고 있던 마술이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의도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로 보여주는 마술은 마술 자체가 가지는 의외성을 더 크게 만들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마술로 새롭고도 특별한 수업 만들어가는 스텝매직(S.T.E.P Magic)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교사마술교육연구회 스텝매직(S.T.E.P Magic)은 마술을 좋아하는 선생님, 마술을 활용한 아이들과의 교감과 소통하고, 마술을 통해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50여 명의 현직 유치원,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활용할 다양한 교육마술 수업을 비롯해 음악·노래·미술·페이퍼크래프트·역사·교실놀이 등 새롭고도 특별한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이지갑 마술 알아보기〉
궁금하다면 QR코드로
들어오세요~!

들썩들썩, 수업에 랩을 도입하다

굳이, 선생님께 배울 Rap

글. **서진혁** 경기 김포 유현초등학교 선생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점심시간 신청곡을 받으면 힙합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힙합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힙합으로 수업을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들썩거리는 힙합 수업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힙합에 빠지다

어렸을 때 발라드 듣는 걸 좋아했어요. 남자들이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18번곡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리듬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다니! 찾아보니까 힙합이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힙합 장르의 노래만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보니까 또 따라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링마벨〉, 〈이력서〉 같은 노래들을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접 만든 비트에 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에 이현지 선생님(달지)께서 랩을 해주셔서 저의 작곡가로서 데뷔곡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작권협회에도 등록돼 어쩌다보니 스트리밍 사이트나 노래방에서도 작곡가로 저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임 이름은 노래의 절정을 뜻하는 'HOOK'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홍대에서 버스킹도 할 계획입니다.

약력 서진혁

- 現 김포 유현초등학교 교사(5년차)
- 굳이(Good-Education) 리더
- HOOK 선장

굳이, 만나다

'굳이' 멤버 3명은 2011년 청주교육대학교 힙합 동아리 '지드업'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게 지금의 '굳이' 선생님들입니다. 같이 음악하자고 하니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성해 선생님, 길로만 선생님 총 3명으로 팀을 결성한 게 지금의 '굳이'(Good-Education)가 되었습니다. 힙합으로 좋은 교육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나 'Good-Education'이기도 하고, '굳이' 선생님들이 힙합을 한다고 해서 '굳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곡, 최성해 선생님은 수업 및 랩, 길로만 선생님는 랩과 영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파트를 나눠서 열심히 활동했더니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여기저기서 강연이나 공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EBS 방송 〈행복한 교육세상〉에도 출연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불러주셔서 여러 연수에서 축하공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 참쌤스쿨의 콘텐츠축제와 경기도평생교육원에서 랩 관련 연수도 진행했습니다. 공연 및 연수뿐 아니라 굳이 선생님들과 함께 힙합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앨범 작업 중인데요. 9월쯤에 '굳이'의 첫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첫 앨범이라 설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하면
> 아이들과 재미있게
> 수업할 수 있을까
> 고민하다가
> 따분한 교과 수업을
> 재구성해서
> 신나는 힙합을
> 여러 수업에 적용하게
> 되었습니다.

따분한 교과 수업에 랩을 적용하다

제가 2년차였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따분한 교과 수업을 재구성해서 신나는 힙합을 여러 수업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 4학년 1학기 과학 '식물의 한살이' 단원과 국어 '일에 대한 의견' 단원을 재구성하여 힙합을 적용했습니다. 식물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로 쓰고 랩으로 연습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수학을 공부하며 힘들었던 마음을 가사로 풀어서 랩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학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진지한 마음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마이크와 앰프 등을 이용하고, 아이들의 투표

'Good.Education 굳이'의
교육힙합이 궁금하면
QR코드로 들어오세요~!

잔소리

작사 : 달지
작곡 : 서뺀
편곡 : 서뺀

얘들아 종 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해오라고

2

3

4

5

6

로 선정된 한 팀은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랩으로 수업을 하니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아이들도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더니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히더라고요. 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기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재미있게 랩 가사를 쓰다보니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나중엔 EBS 방송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노래도 불렀는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리고 학년을 마치기 전엔 절반 정도가 학교의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서 랩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직접 만든 가사로 랩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수업을 하다보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만족하는 수업이 되는 것 같아 수업이 즐거워졌습니다. Ⓣ

1.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다
2, 〈잔소리〉 가사.
3, 4. '굳이' 결성 후 활발히 강연이나 공연을 하고 있다.
5, 6. 선생님께 배울랩, 아이들 가사 및 발표 장면.

쌤동네

쌤동네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NEW

콘텐츠를 분류별로 더 쉽고 편하게!

주제별,
학년별분류로
콘텐츠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쌤들을 위한
오프라인모임 지원 프로그램

교사 학습공동체뿐 아니라 교양, 취미까지 교사 모임이면 모두 지원해드려요!

공개 오프라인 강연 시
장소(서울·역삼)

현수막 및
명함 제작

연수할인권 및
교사학습공동체 도서

첫 모임 시
과자 종합세트

티처빌 54만명
회원 대상 홍보

'5분만에 모임 개설하는 방법' 확인하세요!

이 책 한 권이면 왕초보도 뚝딱 그릴 수 있다!

수업이 즐거운 손그림 그리기

저자. 정원상
출판사. 테크빌교육

오늘날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전달하며 의사소통한다. 학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할 때, 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교실 환경을 꾸밀 때 이미지를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수업 중에 이미지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기억하고 잘 활용한다. 소통을 할 때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내용 전달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꾸밀 때는 협동심은 물론 창의력, 인터넷과 PC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이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정원상 선생님의 『수업이 즐거운 손그림 그리기』는 혼자서도 쉽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해준다. 기본 선 그리기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삼각형·사각형·원 등 도형 그림으로 '손그림 그리기의 기초'를 익힌다. 나무·산·강 등 자연과 인물, 교과별 주제 그림으로 다양한 그림 그리기를 '연습'한다. 나아가 손그림 및 디지털 이미지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기술적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책 속 '그리기 노하우'를 읽고 나서, 책에 제시된 그림을 직접 따라 그리다 보면,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실에서 그림을 활용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판서, 공책 필기, 학습지, PPT 등에 손그림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만 빼곡하게 주고받을 때보다 수업을 훨씬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21세기 미래 역량 중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창의력은 물론 기억력을 높이고, 이미지로 함께 소통하는 즐거움도 알게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 적용해본 것 중에서 쉽고 효과가 높은 것만 수록한 이 책은 과학·사회·국어 등 교과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연습용 그림을 350개 남짓 제시하고 있다. 실험 도구며 선거나 투표 모습, 역사적 인물의 옷차림 등을 따라 그리고 채색하다 보면 교과 수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이 되자!

감정조절카드

저자. 김태승, 강진호 **삽화.** 김영화
출판사. 테크빌교육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을까? 해마다 심화되는 학교폭력,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업으로부터 겪는 스트레스와 같이 '감정'에 관한 문제는 이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최근 SNS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정서적 고통을 해소하려는 방편이며, 타인에게 보내는 도움의 요청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감정조절카드』는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불편함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기존 '감정카드'가 '자기 인식과 표현'에 중점을 둔 반면 『감정조절카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긍정 심리학을 바탕으로, 부정적 정서 조절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의 증진을 통해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감정조절카드』의 구성은 크게 감정단어카드(50장)와 감정조절전략카드(65장)으로 나누어진다. 감정단어카드는 쾌감정/상태감정/불쾌감정을 나타내는, 활용도가 높은 단어로 구성했다. 감정조절전략카드는 생각하기/마음 돌보기/행동하기/감각 활용하기/충분히 누리기/즐거운 정서 늘리기의 여섯 가지 전략으로 분류해 각각 부정적 정서 조절과 긍정적 정서 증진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각 분류에 따라 '빈 카드'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직접 감정단어나 감정조절전략을 만들 수 있고, 1~5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숫자카드로는 각 감정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다. 각 카드의 활용을 위한 '빙고카드'까지 포함해 총 130장의 알찬 구성으로, 교사(상담자)의 전문적 상담 역량과 관계없이 직관적 활용이 가능하다.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보며 감정조절을 통합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선생 만상툰

그림. 최성권
청주 솔밭초등학교 선생님

1. 책읽기

2. 소프트웨어 강의

3. 독서모임2

4. 전자책

티처빌 플랫폼 '쌤동네'에서 4컷 웹툰 '권선생 단상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쿠카'와 밴드 스티커 '수줍은 눈토끼, 토뭉이'를 출시하는 등 그림 그리는 교사 권선생입니다. 저서로는 『쿠카의 코딩 크래프트』, 『메이크코드&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6학년 실과 SW교과

SW 수업을 위한 두 가지 솔루션

초등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게임의 즐거움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교과에 연계하여 순차, 반복, 조건 등의 설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과 익힘>**책과 함께합니다.

태블릿에서도, PC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한

코딩 갤럭시

아이들이 게임하듯 몰두해서
컴퓨터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지는 **워크시트**와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수업할 수 있어요.

문의 070·8282·0154 (테크빌교육 즐거운학교)

쌤동네

강사섭외 서비스OPEN

쌤·찾·자
강사와 모임을 잇다

강사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힘드셨죠?
강사 콘텐츠 확인부터 섭외요청까지
쌤찾자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강사님 누구나,
우리학교, 우리모임 연구 주제에 딱 맞는 강사를 찾는 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강사섭외지원 프로젝트 **첫 번째** ·····

섭외비용도 쌤동네에서 해결하세요~

참여방법: 강사섭외 진행 후 쌤동네에 후기 등록하기

참여기간: 2019.08.26(월) ~ 2019.11.30(토)

함께여서 더 즐거운 100% 선물

Tekville 테크빌교육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

- **티처빌연수원** 교원연수 (직무·자율)
- **쌤동네** 선생님이 만든 교육 콘텐츠
- **티처몰** 교육 전문 쇼핑몰
- **키즈티처빌** 영유아 교사연수 (고용보험 환급)

즐거운학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교육 플랫폼

- SW·메이커
- 진로진학·학습
- 인성심리
- 체험·행사·연극
- 예방·보건

행복한 부모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 **부모공감**

- 부모교육 특강
- 소통대화법
- 진로학습코칭

Tekville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프라자빌딩 5.6.8층 (역삼동 654-3)
02-3442-7783 | www.tekville.com
기업제휴 문의 1544-7783